

보도시점 2026.6.1.(월) 16:00
< 6.2.(화) 조간 >

배포

2026. 6. 1.(월)

오만과 자원·플랜트·물류 등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 산업통상부 장관,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 의장과 화상 면담 개최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6월 1일(월) 까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Qais bin Mohammed Al Yousef)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 의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 물류 원활화 등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자원 확보, 공급망·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를 통해 원유·나프타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 장관 회담은 이러한 성과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하여 대체 물류 거점 및 자원 공급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오만과의 협력 확대를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오만이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자원 협력 파트너로서 원유와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4월 전략경제 협력 특사 방문을 계기로 오만 정부가 원유·나프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특사 방문 당시 협의된 원유·나프타 공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김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이 두쿰 정유공장, 마나 태양광 발전소 등 오만의 주요 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만 내 신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금번 면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물류거점으로서 오만 주요 항만의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두크함을 거쳐 사우디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오만 내 관세 납부·환급, 사우디 국경에서 중복 검사·검역 등 절차 상의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오만 경유 화물이 신속히 사우디 등 최종 목적지로 운송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교역·투자·자원·기술 등 주요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해 온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가 ‘16년 제5차 회의 이후 장기간 개최되지 못한 점을 주목하며, 조속히 경협위를 재개하여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최 시기, 의제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오만은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동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이번 면담과 향후 경제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원 안보, 플랜트,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지혜인 (044-203-5724)

